

한구절
목 상

2026.3/4

생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 119:105)

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3년 1독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어가며, 그 중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❶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3년과정으로 3년에 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 ❷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묵상노트를 활용하여 개인 묵상해 보세요.
- ❸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 ❹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 ❺ 다락방 모임과 청년부 순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 ❻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의 개인 묵상과 은혜를 나눠보세요.

한 구절 묵상 3년과정 커리큘럼

	1년	2년	3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 시편1	잠언 / 시편2	전도서 아가 / 시편3
선지서	이사야 호세아 요엘 / 아모스 오바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나 / 미가 / 나훔 하박국 /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 스가랴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울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❶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❷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묵상이 어려운 본문(연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방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 ❸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집필됩니다.
- ❹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1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3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3/1 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장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경위를 통해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개역개정]

23 보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새번역]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몸이라는 제한 속에 스스로를 가두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낳기신 십자가를 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8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1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2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 곁에서 숨 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9

4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5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6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한 구절 가정예배」 소개

① 우리가족 말씀 나눔

온 가족이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한 구절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시아, 느헤미야, 에스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묵상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나눔 질문을 돕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1-23, 새번역]

-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구원이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기억하면 좋은 순간은 언제일지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세요.

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눔을 통해 목상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③ 온 가족 감사 나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④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대화를 통해 생긴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주 대표를 정해 기도하기, 가족이 돌아가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경위를 통해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1장 23절

[개역개정]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새번역]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몸이라는 제한 속에 스스로를 가두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남기신 십자가를 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 곁에서 숨 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1-23, 새번역]

-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구원이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기억하면 좋을 순간은 언제일지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세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헤롯 왕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2장 6절

[개역개정]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 니이다

[새번역]

6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가 믿는 성경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신비로운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베들레헴으로, 다스리는 자에서 섬기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과 성공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꽃피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 삶 속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우리 주변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 삶의 연약함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사랑과 정의를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3장 16-17절

[개역개정]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새번역]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앞으로 마주할 모진 시험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게 한 근원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는 핵심 메시지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유혹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셨듯, 우리 역시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세상의 성과나 평가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

.....

.....

.....

❷ 요즘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나요? (예: 직업적 성과, 타인의 평판, 경제력 등)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평가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개역개정]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새번역]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한 구절 묵상**

천국 복음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들고 직접 갈릴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회당으로, 마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삶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경험되는 온전한 복음으로, 이미 우리의 일상 안에 깊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만져주신 순간은 언제였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심으로 전해 주신 그 복음을,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5장 3절

[개역개정]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새번역]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세상은 채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선포하십니다. 가득 찬 자가 아니라, 비어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로움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까? 손에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빈손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더 채우려 애써왔나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며 외적인 경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6장 6절

[개역개정]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새번역]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대개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받으려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골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꾸밈 필요도,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골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숨겨진 눈물과 탄식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바쁜 하루이지만, 지금 문을 닫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이 나에게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산상수훈 마지막 단락 본문으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7장 13-14절

[개역개정]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새번역]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흔히 길이 크고 넓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다수의 선택을 옳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여정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결단을 뜻하며, 생명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좁은 문을 지나 들어선 길은 때로 불편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인한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 된 삶의 시작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 ② 넓은 길이 훨씬 안전하고 수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기준이나 안락함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방향을 분별하게 하시고, 좁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에서 배제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8장 2-3절

[개역개정]

-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새번역]

- 2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한 구절 묵상

나병 환자는 ‘하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결과를 요구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일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끊어졌던 관계의 거리를 허무시는 회복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온전해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은혜는 언제나 가장 부서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병 환자처럼 숨기고 싶거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껴 뒷걸음질 치게 되는 나의 ‘부서진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감추고 싶던 연약함과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두려움 너머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1-4, 새번역]

-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 2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 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직접 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병을 고치고 그를 다시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먼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내딛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서로의 연약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피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형식보다 긍휼 위에 세워짐을 밝히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9장 13절

[개역개정]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새번역]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구절 묵상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지지만, 그 기준이 어느새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완성보다 사람을 향한 긍휼을 기뻐하시고, 차가운 옳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긍휼은 허물을 모른 척하는 눈감음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시선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해진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정성껏 지키는 신앙의 기준과 형식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중심에 '나의 옳음'과 '주님의 자비' 중 무엇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차가운 논리로 무장한 삶이 아니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 위에서 함께 지어지게 하옵소서.



3/10
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기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개역개정]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새번역]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제자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무능력함을 발견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와 회복을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3/11
수

진정한 쉬를 배우라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하시고 완고한 세대를 향해 책망 하시며 참된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개역개정]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번역]

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한 구절 묵상**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쉬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진정한 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십니다. 쉬를 누려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쉬, 마음의 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여전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고 진정한 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 안식일의 참된 주인, 참된 메시아,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2장 50절

[개역개정]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새번역]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이 있고,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를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 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에게 하늘 가족으로 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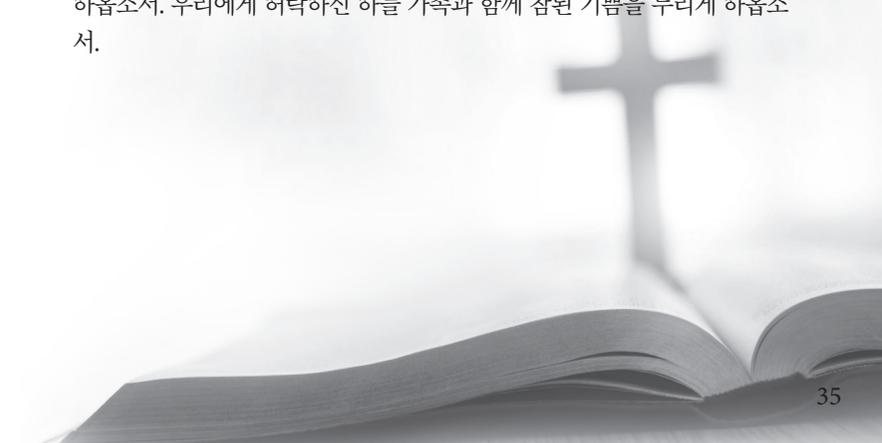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가족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여러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개역개정]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새번역]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한 구절 묵상**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천국은 그저 지나가는 밭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눈을 돌려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에게 천국은 어떤 곳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을 만나 누리며 살기 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유혹을 떨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14
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4장 26-27절

[개역개정]

-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새번역]

-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구절 묵상**

두려운 상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며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묵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요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기보다 오늘도 나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감사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15
주일

공급 이전에 있던 공홀히 여기심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은 수일 동안 말씀을 들은 무리들을 공홀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5장 36-37절

[개역개정]

-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새번역]

-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 37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한 구절 묵상**

주님은 수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들에 대해 공홀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지만 그보다 앞서 있던 공홀히 여기심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공홀히 여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홀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하나님의 공홀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나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공홀이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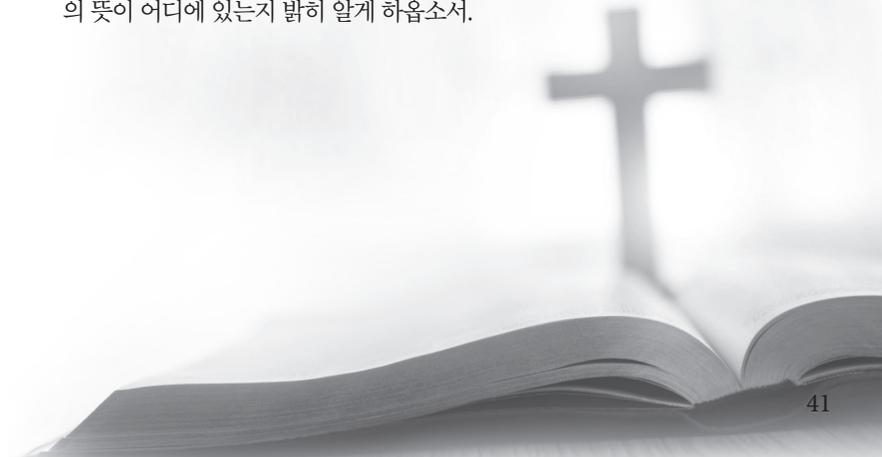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공홀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알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5:34-39, 새번역]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 37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 38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 39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일곱 개의 빵과 몇 마리의 작은 물고기, 부족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작은 것이 나눔의 통로가 될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은혜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첫 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일상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충분해집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해 주세요.

3/16
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며 특별히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16장 15-16절

[개역개정]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번역]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거대한 황제의 신전이 돋보이던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으로 대표되는 성공과 번영, 세상 사람들의 평균적 인식이라는 안전한 대답을 넘어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에 대한 질문은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대판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화려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3/17
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기대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곧 닥칠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7장 22-23절

[개역개정]

-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새번역]

- 22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 23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의 수난 예고는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당혹감과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좁은 시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상치 못한, 기대에 어긋난 결과로 근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혹감에 갇혀 보지 못하는 그 시야 너머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짧은 이해와 분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결국 부활의 승리로 제자들의 의문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내 삶에서 내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좁은 시야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분석과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어린 아이를 내세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며 겸손과 환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8장 4-5절

[개역개정]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새번역]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높아지려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접'은 작고 연약한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낮은 자를 환대하는 그 현장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혹시 나보다 능력이 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무시했던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다양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혼과 어린아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19장 21절

[개역개정]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새번역]

2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한 구절 묵상**

부자 청년은 영생을 진지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손에 쥘 것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재물이나 명예, 관계나 안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움켜쥔 것들이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더뎠는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 안전함과 만족을 얻으려 해왔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여전히 제 손에 쥘 것들을 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던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3/20
금

더욱 소리 질러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와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20장 30-31절

[개역개정]

- 30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 3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새번역]

- 30 그런데 눈 먼 사람 둘이 길 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 31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구절 묵상**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라는데 더 크게, 멈추라는데 더 간절히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주저하게 만듭니까? 주저되는 상황 속에서도, 방해하는 목소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닿을 때까지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방해하는 목소리와 망설이는 마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3/21
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21장 3절

[개역개정]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새번역]

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특별한 조건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평범한 나귀는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태우는 도구가 되었고,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준비되었는지, 충분한지 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준비 상태를 더 따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내 일 상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저의 기준과 계산을 내려놓고,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3/22
주일

부름에서 선택으로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을 말씀하시며, 부르심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22장 14절

[개역개정]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새번역]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말에 안주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부름과 선택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초청은 은혜이지만, 선택은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라는 말 뒤에 수동적으로 머물지만 하나님 나라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고백에 머무는 명사적 삶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제로 걸어가는 동사적 삶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부르심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그 은혜가 오늘 어떤 순종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은혜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오늘의 선택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2:11-14, 새번역]

- 11 임금의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 12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13 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임금은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왔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의 기쁨보다 자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초대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익숙해진 믿음을 다시 소중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습관처럼 여기고 있는 자리나 시간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으로 응답하는 가정 되게 해 주세요.

3/23
월

회칠한 무덤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경건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겉의 의로움과 내면의 부패 사이의 괴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23장 27-28절

[개역개정]

-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새번역]

-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 구절 묵상**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외피 아래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은 신앙은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자신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경건의 모양’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꾸며진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감추어진 내면까지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주께서 오실 날을 알 수 없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개역개정]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이니라

[새번역]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에 묶기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살도록 이끄는 은혜이고, 깨어 있음은 미래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특별한 표적을 기다리기보다, 평범한 하루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삶이 곧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평범한 오늘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하루가 되기 위해,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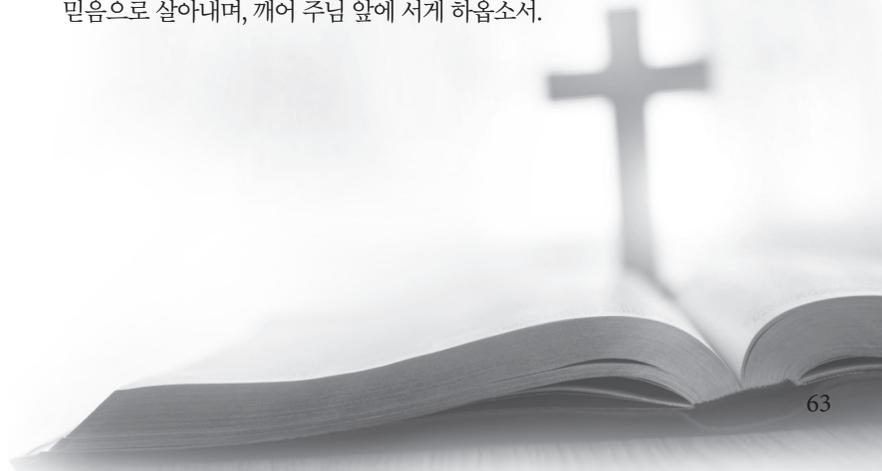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일에 갇힌 시선으로 오늘의 순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3/25
수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종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임금 비유를 통해 갑자기 임할 마지막 날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개역개정]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 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 다 하고

[새번역]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한 구절 묵상**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나눠 줍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종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이 할 일을 했고, 그 즐거움은 오롯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종 된 우리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며, 우리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동역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단지 종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종의 모습을 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3/26
목

후회와 인정의 눈물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배신과 부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26장 75절

[개역개정]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번역]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한 구절 묵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통곡했습니다. 이 눈물은 후회와 실패를 인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려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고도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품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실패와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저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3/27
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27장 54절

[개역개정]

54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새번역]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예수님은 이 땅 오신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가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 질문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이자 해답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에 다시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통해 확증될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믿나요? 논리와 기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셔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3/28
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의 본문 |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마태복음 28장 19절

[개역개정]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새번역]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구절 묵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특별한 몇몇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제자로 세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맡기신 명령에 순종하며, 오늘도 한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29
주일

하나님의 대리자

오늘의 본문 | 창세기 1장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장 27-28절

[개역개정]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1:26-28, 새번역]

-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말씀만으로 급히 빚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누구도 더 크거나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림은 함부로 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임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맡겨진 자리를 잘 돌보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모습은 어떻게 더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맡겨진 삶을 잘 돌보게 해 주세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장 17절

[개역개정]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새번역]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금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지만, 육체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길을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돌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자유보다, 내가 더 집착하고 있는 '금지된 열매'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켜 걷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3/31
화

두려움의 이유

오늘의 본문 |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으로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장 10절

[개역개정]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새번역]

10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아담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합니다. 죄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숨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수치를 들키지 않으려 수많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버린 우리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대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치의 옷을 벗겨내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 주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직한 대면의 순간,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또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니 더 이상 숨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며 이후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선명하게 대비되며 소개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4장 8절

[개역개정]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새번역]

8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한 구절 묵상

가인의 분노는 아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평소와 다름 없었지만, 가인에게 아벨의 존재는 자신의 부족함과 거절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거울이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속상함이 동생을 향한 날 선 공격성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비극의 결정적인 원인은 가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아벨에게 고정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곁에 선 타인의 결과물에 매몰될 때 우리는 누구나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선이 ‘위’가 아닌 ‘옆’으로 향하는 순간 타인의 존재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드러내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상처를 건드려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누군가의 존재가 위협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오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십시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에녹과 므두셀라 등 인물별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들도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5장 24절

[개역개정]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새번역]

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열거하며 ‘죽었더라’라는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 인류는 낙원을 상실하였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계보 안에서 에녹의 존재는 반전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소망의 힘은 ‘동행’에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소망은 어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보편을 맞추는 일상의 동행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꿈꿉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작은 걸음들이 모일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낙원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의 일상 속에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보편을 맞추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에녹이 누렸던 동행을 저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동시에 노 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6장 6-7절

[개역개정]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새번역]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
- 7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한탄하십니다. ‘한탄하다’는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극심한 아픔을 뜻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지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나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쉽게 지나쳐 왔던 죄나 태도가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죄악 가득한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십 일 동안 비를 내려 온 땅이 물로 덮이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7장 1절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새번역]

1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심판에 앞서 은혜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는 ‘주목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삶을 주목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 아무도 모르는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완벽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나는 어떤 위로와 도전을 느끼게 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8장 17절

[개역개정]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새번역]

17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한 구절 묵상**

방주는 구원의 장소였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밖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는 태초에 주셨던 사명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넘어지고 실패하여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멈춘 삶에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사명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8:13-19 새번역]

- 13 노아가 육백한 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다야 말라 있었다.
- 14 둘째 달, 곧 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다 말랐다.
-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 16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 17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짐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 18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 19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목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긴 비가 그치고 마침내 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어 바깥을 바라보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준비되었는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를 먼저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노아는 가족과 모든 생명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주어진 순종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엽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앞서 나가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노아가 땅이 말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모습에서 우리 가족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해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 가족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홍수 심판 이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9장 11절

[개역개정]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홍수 이후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사랑 안에서 내려놓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여전히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입니까?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연약함보다 앞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오늘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와 종족, 지역에 따라 흠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정착해 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0장 5절

[개역개정]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새번역]

5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한 구절 묵상**

노아의 후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흠어져 정착해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 지역은 우연이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며, 다양성 자체를 창조의 일부로 품으셨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질서를 흐리지만, 주어진 자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은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❷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주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 중심의 시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1장 8-9절

[개역개정]

-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새번역]

- 8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흠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 9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

 **한 구절 묵상**

창세기 10장의 흠어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자리로 향한 질서였다면, 바벨탑의 흠어짐은 그 질서를 거스른 인간의 시도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그 멈춤은 붕괴가 아니라 방향을 되돌리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흠어짐을 실패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시기에, 그 과정 속에서도 선하신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흠어짐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정렬하신 경험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보다 앞선 계획을 내려놓고, 제 삶이 주님의 질서 아래 재정렬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2장 10절

[개역개정]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새번역]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한 구절 묵상**

기근이 오면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아브람은 갑자기 찾아온 심한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떠나 애굽에 머물렀을 때 그의 기근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은 애굽이 아니라 그 땅, 약속의 땅에 머물 때 해결됩니다. 잠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목을 적시는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과 해결함이 있는 그 땅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② 내 삶에 찾아온 기근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땅에 머무르기를 힘쓰고 있나요?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향했던 저의 발걸음을 돌이켜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브람은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3장 3-4절

[개역개정]

-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새번역]

- 3 그는 네겡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 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벧엘 부근에 이르렀다. 그 곳은 벧엘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 4 그 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한 구절 묵상**

애굽에 머물렀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벧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아브람을 벧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벧엘에서 처음과 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근의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에서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11
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늘의 본문 | 창세기 14장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4장 20절

[개역개정]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새번역]

20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한 구절 묵상**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아브람이 깨달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대적을 아브람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발견하고,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수많은 영적 승리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기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내 삶에 얻은 승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나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승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4/12
주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15장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 간에 책임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며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5장 17절

[개역개정]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새번역]

17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고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한 구절 묵상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를 쌍방 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위반할 경우 죽은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횃불로 나타나시는데, 아브람은 쪼갠 고기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이는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언약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은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15:13-17, 새번역]

- 13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 14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 15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 16 너의 자손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17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기쁜 약속만이 아니라 어려운 미래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손이 나그네로 살며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시간은 더디게 흐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언약의 길을 사람은 건지 않았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약속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기다림과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세요.

사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들 여보냅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6장 2절

[개역개정]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
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새번역]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
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따랐다.

 **한 구절 묵상**

사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며 불평합니다.
결국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들여보내 대를 잇게 했습니다. 사래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을 지키게 해드릴 최고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를 향한 특별한 계
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래는 그 계획과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
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한 순종이 곧 불순종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
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도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의 판단의 순
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통해 언약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7장 5절

[개역개정]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새번역]

5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나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나의 ‘작은 일’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4/15
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의 본문 |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하며 이삭의 출생 약속을 재확인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 심판을 두고 하나님과 끈질긴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8장 32절

[개역개정]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32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구절 묵상**

자칫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이 끈질긴 협상에서 하나님은 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수용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기다림과 그 성읍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끓는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하게 그 성읍을 멸하지 않아도 될 의인들을 찾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응할 의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시선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머무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락한 소돔 성에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로 롯의 가족이 구출되지만 끝내 소돔은 멸망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19장 16절

[개역개정]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다

[새번역]

16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롯이 지체한 이유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장의 큰 위기를 인지하고 행동할 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그 가족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강권적인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도 안전불감증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미 익숙해진 내 삶의 ‘소돔’과 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롯은 멸망이 예고된 곳에서 왜 지체했을까요? 내 머리로는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익숙한 습관이나 환경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익숙함에 젖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4/17
금

반쪽짜리 진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 را를 보호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0장 12절

[개역개정]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새번역]

12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묵상**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탄로 나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 위기 앞에 선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짓 사이에 사실의 조각을 섞어 잘못이 없는 척 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며, 사실의 조각들을 만지작거리며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면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할 사실의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길게 말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변명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1장 1-2절

[개역개정]

-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새번역]

- 1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 2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한 구절 묵상

‘돌보셨다’의 원어는 ‘돌보다’, ‘방문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라를 잊지 않으시고, 정한 때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라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허공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잊힌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

.....

.....

.....

② 오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긴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를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4/19
주일

삼 일 동안의 걸음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2장 3-4절

[개역개정]

-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새번역]

- 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었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 4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명령은 충격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삼 일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긴 여정 동안 그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돌아서고 싶고, 묻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고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걸어갔다는 사실만을 전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과정을 동반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삼 일을 걸으며 마음을 준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시며, 그 자리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걷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과정 속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4/20
월

무덤 하나뿐일지라도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3장

사라의 죽음 이후, 아브라함은 헛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정식으로 매입하여 아내를 장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3장 18-19절

[개역개정]

-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새번역]

- 18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헛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 19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한 구절 묵상**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약속하셨지만, 그가 소유한 땅은 아직 없었습니다. 성경은 막벨라 굴을 정식으로 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비록 작은 무덤에 불과했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이 공식적으로 그의 소유로 인정된 첫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작은 무덤에서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현실이 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내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서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작은 약속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아직 전부를 보지 못해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4/21
화

은혜의 다음 장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4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4장 56절

[개역개정]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번역]

56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만남을 ‘완수’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먼 길을 온 수고에, 하루 이틀 더 머문다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의 형통함이 여정의 끝이 아님을 알기에, 지체하지 않고 보낸 이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은혜를 확인한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동력 삼아, 미련 없이 사명의 길을 다시 나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 사명을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방향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4/22
수

영원을 흥정하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5장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야곱에게 팔았습
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5장 32-33절

[개역개정]

-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
하리요
-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
에게 판지라

[새번역]

- 32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만아들
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 33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만아
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한 구절 묵상**

에서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지금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사
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결핍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축소합니다. 우리 역시 눈
앞의 필요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
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신뢰하는 일입니
다. 우리는 순간의 결핍 앞에서 영원을 흥정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
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지금 내 삶에서, 순간의 필요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실제로 붙드는 제가 되
게 하옵소서.



4/23
목

필요보다 예배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6장

우물을 두고 계속된 종들의 다툼이 종식된 후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삭은 먼저 예배로 응답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6장 25절

[개역개정]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새번역]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한 구절 묵상**

이삭은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막과 우물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땅이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준비하기에 앞서, 길을 여신 분께 예배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삶의 길이 열릴 때마다 제 필요보다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그 자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4/24
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7장

야곱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창세기 27장 41절

[개역개정]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새번역]

41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 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한 구절 묵상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급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거짓에 빠졌고, 에서는 미움과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축복의 자리가 미움과 죽음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약속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신실하심 뒤에 숨어 나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부분은 없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정당화했던 저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8장 19절

[개역개정]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새번역]

19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단지 '루스'라는 지명일뿐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예배하는 순간 그곳은 '벧엘(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일상의 자리인 '루스'가 예배의 자리 '벧엘'로 바뀌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의 일상의 자리 '루스'가 예배의 자리 '벧엘'로 바뀌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혼자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4/26
주일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

오늘의 본문 | 창세기 29장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29장 25절

[개역개정]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새번역]

25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한 구절 묵상**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을 속인 라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사고, 이삭을 속여 복을 받은 야곱이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삶 속에서 나의 문제를 직면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문제를 마주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29:21-25, 새번역]

- 21 칠 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 22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 23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 24 라반은 여중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 25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기다림이 끝났다고 생각한 날, 야곱은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밤이 지나가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야곱은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기다림의 끝에서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예상하지 못한 ‘아침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조급하지 않게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야곱이 아침이 되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

.....

.....

.....

.....

.....

.....

.....

.....

.....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배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4/27
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 창세기 30장

레아와 라헬은 자녀를 낳는 일에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0장 2절

[개역개정]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새번역]

2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한 구절 묵상**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정작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불평합니다. 제아무리 야곱이라도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라헬은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로써 언니 레아와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은 이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도 선하게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4/28
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 창세기 31장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라반을 떠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1장 3절

[개역개정]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새번역]

3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은 오랜 시간 라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을 떠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 걸음이 정작 믿음의 걸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걸음이 곧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기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어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만족하는 기도를 드러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언제나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4/29 두려움 앞에서

수

오늘의 본문 |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2장 11절

[개역개정]

11 내가 우째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새번역]

11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한 구절 묵상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유가 큰 만큼 잃을 것도 많은지라 그에게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 뒤에 숨지는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진정시키며, 약속을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두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 앞에 약해질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합니다.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나에게 크게 다가온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쫓고 쫓기던 야곱과 에서가 만났고, 둘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화해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창세기 33장 4절

[개역개정]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새번역]

4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은 오랜 기간 원수같이 지냈던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독자들은 야곱이 가족들을 배치시키는 순서를 통해 그가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았고 눈물을 흘리며 극적인 화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 받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용서 사이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용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용기를 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랜시간 용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과 용서 사이에서 용기를 구하오니 손 내밀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옵소서.





평촌 대한 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